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1)**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함**

4/18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5:4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일 4:13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마 1:23

23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마 18:20

20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 28:20

20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롬 8:9, 11, 16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약 4:5

5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은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고전 2:12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3:16

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집이신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사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다. ...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의 첫번째 부분이다. ... 우리의 누림의 두번째 부분은 ...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그분 안에 사는 것은 우리를 주님을 누리는 위치에 놓는다.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누림 그 자체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약의 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도가 필요하다. 신약의 사분의 일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 관련되며, 신약의 사분의 삼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관련된다.(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0 장, 14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영(약 4:5, 롬 8:9, 11)은 우리 영 안에 있는(롬 8:16)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증언하신다. 거하시는 영, 곧 내주하시는 그 영은 우리와 하나님의 상호 거함, 상호 내주함의 요소와 영역이다.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서로 안에 거하며 상호 내주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 증명된다(요일 4:12).(요일 4:13 각주 2)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우리는 이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내로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인내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실재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길과 실재로 체험할 때, 우리는 “이 길과 이 실재는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마 18:20). ... 이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집회에서 예수님의 임재는 사실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심지어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함께 계신다(마 28:20). '항상'은 오늘을 포함한다. 오늘에 대하여 잊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8 장 7 절과 8 절에 따르면, 원수는 임마누엘의 땅을 탈취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의 영은 임마누엘의 땅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의 땅이다. 원수 사탄과 그의 모든 군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임마누엘의 땅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영과 우리의 존재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이사야서 8 장 10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임마누엘의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 아마 지난주 동안에 사탄은 스물한번이나 우리를 장악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매번 실패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마태복음라이프 스타디, 6 장, 90-9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10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6 장*

4/19 화요일

### 아침의 누림

요 14:17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 5:25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요 14:16, 18-20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 위해 육체 되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육체 되심을 통해 그분의 믿는 이들 밖에서 임마누엘이 되실 수 있었으나,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시려는 그분의 의도의 일부분만 성취했다. 그분께서 외적으로만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그분은 또 다른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다. 이 두 번째 과정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다. 부활 안에서 그분의 물질적인 형체는 영적인 형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임마누엘, 즉 신성한 삼일성의 임재이다. 이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딤후 4:22).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있다.(세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9 장, 139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육체가 되신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실질적인 임마누엘은 실재의 영이다(요 14:16-20).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마태복음 18 장 20 절과 28 장 20 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을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 그들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들과 함께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4 장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16 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에 17 절과 18 절에서 주님은 그분께서 이 보혜사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 장 20 절의 ‘나’는 임마누엘이다. 요한복음 14 장 18 절에서 돌아오실 ‘나’는 17 절의 ‘실재의 영’을 의미한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에는 신성한 계시의 발전이 있다. 오늘날 실재의 영은 임마누엘이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실재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시다. 삼일 하나님으신 그분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와 주로 내적인 방식으로 함께 계신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내적인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분께서 온종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실 뿐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행하고 말한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더 많이 체험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한담과 같은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이시라는 인식과 느낌을 가져야 한다. 그분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말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자신에 의해 산다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전 생애를 변혁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여전히 살지만 우리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7:14, 8:8)에서 처음으로 언급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라 부르지만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관이다. 우리는 그분의 기관으로서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산다. 삼일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함께 사신다. 우리의 승리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9 장, 138-1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9 장; 이사야 라이프스타디, 8 장*

**4/20 수요일**

아침의 누림

**출 33:14**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시 27:8**

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행 3:19-20**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도록 하십시오.

20 그러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임명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행 16:7**

7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 51:11**

11 주님의 임재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계 21:3**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행 2:25-28**

25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6 그러므로 제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제 혀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제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27 주님께서 제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28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에게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임재로 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셨는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마 1:23).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마태복음 1 장에서뿐 아니라 마태복음 28 장에서도 계시되는데, 거기서 주 예수님은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20 절)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신약 전체가 임마누엘이고,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일부이다.(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8 장, 6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계속 전진하여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차지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 여러분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분의 임재에 의해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15 절)라고 말씀드렸다. 모세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만 많은 경우 그분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도우려고 하시지만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 여러분이 그분께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지만, 그 여행 내내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나는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주님의 임재를 갖지 못했음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가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기뻐하지 않으셨다. ... 그분은 나와 함께 가셨지만,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도록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셨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저에게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당신의 임재에 의해 통제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더욱 전진하여 “오, 주님, 저는 당신의 도움보다도 당신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반드시 당신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임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미소 짓는 임재만이 저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미소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미소가 있다면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져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대항해 일어날지라도 저를 향한 당신의 미소가 제게 있다면, 저는 당신을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라고 말씀하셨다. 이 어떠한 보배로운 말씀인가!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소가 통제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지만, 동시에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 ... 주님 자신은 십중팔구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만, 바로 그 도움과 축복이 그분의 임재로부터 여러분을 떼어 놓을 수 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지켜지고, 다스림 받고,

통제 받고, 안내받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간접적인 임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간접적인 임재를 여러 번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임재가 아니었다.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에 의해서 통제받기를 힘쓰라.(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1 장, 178-18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1 장

### 4/21 목요일

#### 아침의 누림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롬 8:13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고후 4:11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고후 4:6-12, 18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부활은 그 영이고,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합되신 이 한 영안으로 복합되었는데, 이 영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한 인격이다. 생명과 빛 또한 한 인격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생명(요 14:6)과 빛(요 8:12)이시라고 말씀하셨다. ...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절은 없다. 죽음은 완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격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완결은 부활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거치신 과정은 부활로 완결되었다. 따라서 부활은 바로 완결되신 하나님이다.(그리스도인의 생활, 10 장, 156-15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인생은 어려움과 근심과 각종 슬픔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부활이시고 그 영이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 존재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 영은 죽이시며 또한 부활시키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과 그분의 들어 올리는 부활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합되신 영 안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합되신 영을 누릴 때, 우리는 내적 죽음과 내적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죽음에 더하여 부활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죽음에 부활을 더한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신다. ...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시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에 대한 그 영의 적용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 다섯 자매가 한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 아파트 안에서 그들 각 사람은 조심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된 환경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부활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또한 말하는 것에서 제한받아야 한다. ...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그 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대화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다. 십 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불붙을 것이며 부활의 실재이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하고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우리의 환경 전체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이는 칼과 같다. 주님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우리의 환경 안의 모든 것을 마치 우리를 죽이는 칼처럼 사용하신다.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이끌어 온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으려 하고 죽음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다. ...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있는 동안, 진실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한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 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또는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어떤 형제는 아내가 될 자매를 고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형제는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남편들 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엡 5:25).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도살되려고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다(롬 8:36). ...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함으로써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그리스도인의 생활, 10 장, 158-159 쪽, 14 장, 218-2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 7, 10, 14 장

4/2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5:19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

시 103:8-9

8 여호와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풍성하신 분.

9 항상 책망하지는 않으시며 영원히 진노를 품지도 않으신다.

히 4:15-16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롬 13:14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욕망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꾀하지도 마십시오.

골 3:12-14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

아담을 창조하셨던 분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인간 생활을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타고난 인성을 부인하셨다. 그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요 5:19, 30). ... 우리 또한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살고 행하셨지만, 이 육체를 거절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의 타고난 인성 안에서 매력적이고 매력적이며 사람을 소중히 보살핀다. ... 그러나 타고난 인성 안에서 매력적인 이들은 참되지 않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을 가까이해 본다면, 그가 실지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 타고난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어야 한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매혹하시고 소중히 보살피신 것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인성 안에서 하신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10 장, 189-19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 안에 계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근원, 곧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부활 안에서 인간 생활을 하신 사람이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요 14:10).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생활, 곧 부활에 의해 인성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색다른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속임이나 위선 없이 달콤하고 매력적이며 매력적일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그분의 임재가 매혹하는 요인이며, 그러한 임재는 십자가에 부활이 더해져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머물고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갖게 될 것인데, 그러한 임재가 바로 부활이다.

주 예수님은 의심할 바 없이 유대인의 생김새를 지닌 유대인이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유대인의 피와 유대인의 살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인간 생명 안에서 다른 생명에 의해 사셨다. 이 다른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 생활은 비밀스럽게 되었다. 곧 비밀이 되었다.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나온 것은 신성한 어떤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 삼 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하나의 표적이었다(요 2:11 과 각주 2). 모든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다. 주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제자들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보았을 때 틀림없이 흥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두라고 명령하셨다. 그것 또한 하나의 표적이었다(마 14:20 과 각주 1). 주님은 신성하시고 비밀하셨다.

요한복음 8 장에서 죄지은 여인이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끌려왔다. 마지막에 그분은 그녀에게 “그대를 유죄판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10 절)라고 물으셨다. “그 여인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그대를 유죄판결 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11 절) ... 주 예수님은 표현된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을 유죄판결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 그분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시는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이셨으며, 모든 것을 신성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행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이 특별한 것은 신성하고 비밀하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제자가 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것이었다(요 5:19, 3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 사람에게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빌 3:10, 1:21 상).(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10 장, 194 쪽, 2 장, 94-95, 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2, 10 장

4/23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8-9

8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 19:26, 24-25

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4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25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빌 4:5-7, 11-13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열두 명의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안의 궤 앞에 두라고 명하셨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민 17:5)라고 말씀하셨다. ...열두 개의 막대기는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마르고 죽어 있었다. 그중 어느 것이든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임을 본다. 부활은 또한 권위의 근거이다.(워치만 니 전집, 47 권, 권위와 순복(하), 4 장, 3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부활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이다. 부활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자신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막대기에 색을 칠하고 꽃 모양을 새길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할 수 없다. ...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태가 닫히고 나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롬 4:19).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사라를 부활을 대표한다. ... 부활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부활은 자신이 어떠한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열한 개의 막대기는 모두 돌려주셨지만, 아론의 막대기는 영원한 기념으로 궤 안에 두셨다. 이것은 부활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원칙임을 의미한다. ... 주님을 향한 모든 봉사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어느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을 유능하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다. ... 부활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며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안다. 천연적인 힘이 남아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는 없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연적인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다. (워치만 니 전집, 47 권, 권위와 순복(하), 4 장, 332-335 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다. 신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높다. ...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신약의 요구들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그 요구들을 이루어 내신다. 우리는 홀로 일들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분께서 사시고 일하시는 것을 누려야 한다. 오직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오직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그 영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목자,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심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소유한다. 이 영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있다(마 28:19). ...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며, 이 삼일 하나님은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나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 곧 우리 안에 사시는 분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에 대처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욥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120-1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47 권, 권위와 순복(하), 4 장; 욥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6 장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10 장  
이사야라이프 스타디, 8 장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1 장

욥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4/24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4:16-20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빌 1:19-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400 장 오 주님만이 내 생명

1. 오 주님만이 내 생명 나에게 모든 것 되니  
참 친절하고 편리해 영원히 쓰고도 남네

(후렴)

오 주는 생명 주는 영 참 친근하시니  
주 아는 사람 그를 좋아해 항상 새롭네

2. 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공급 되시니  
참 완전하고 풍족해 내 영을 사용할 때에

3. 주 내게 기름 부으며 인도해 날 도우시니  
주 능력으로 내 약함 변하여 강함이 되네

4. 영 안에 율법 생명을 내 생활 자유케 하며  
주 주신 풍성 실재로 내 온 몸 충만케 하네

5. 주 나와 한 영 됨으로 영원히 거리가 없네  
이같은 거룩한 연결 무엇과 비할 수 없네

6. 주 내게 인격 되셔서 마음에 안식합소서  
갈수록 영광 빛 가해 내 온몸 변케 합소서

악보 / 음악 (한 400 / 영 539)

<https://www.hymnal.net/en/hymn/h/539>

2022. 4. 18 ~ 2022. 4. 21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1 장